

대행 스님

한군데를 믿고 한군데다 관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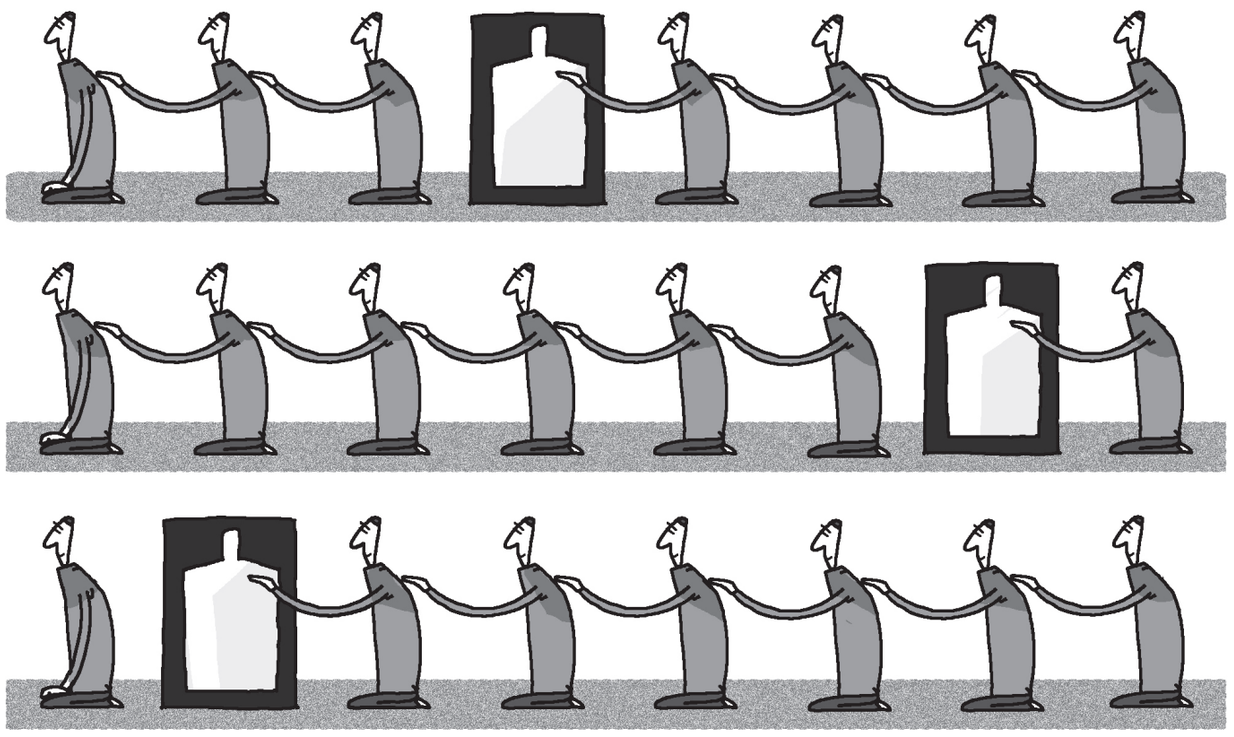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공부가 계속 잘되면 좋겠는데…

질문 이 마음공부를 하다 보니 공부가 잘될 때는 환희심이 나고 기분이 좋은데 공부가 잘 안될 때는 마음이 뭔가 허해지는 것 같습니다. 공부가 계속 잘되게 하려면 어찌하면 좋을까요.

답변 우리가 높고 낮음이 있기 때문에 모두 질서가 지켜지고 사람이 살아요. 길고 짧은 게 있기 때문에 질서가 지켜지고요. 그게 진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공부를 해서 쓰자 하면은 길고 짧은 게 없이 평등한 공부를 하면서 이 평등치 않게 길고 짧은 거를 다스려 나가는 거죠. 평등한 거를 먼저 알아야 그 평등한 속에서 둘이 아니게 중용을 한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모든 것을 크든지 작든지, 내가 큰 데 들어가면 크게 되고 작은 데 들어가면 작은 거가 되고, 이렇게 해서 부처님께서는 "일체 만물만생이 모두 나 아님이 없느니라." 했어요. 원하는 자에게 전부 무조건 주기 때문이죠. 마음이 작은 데 들어가면 작은 것밖에 더 되겠어요? 소한테 들어가면 소가 되는 거고, 돼지한테 들어가면 돼지가 되는 거고, 돼지를 건질 때는. 사람도 돼지로 됐다가 소로 됐다가 말로 됐다가 뭐 별게 다 되니깐요.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모습이 바뀌지거든요, 자꾸.

그러니깐 부처님께서는 돼지가 됐다 소가 됐다 사람이 됐다, 여자가 됐다 남자가 됐다, 애가 됐다 늙은이가 됐다, 또는 새가 됐다가 곤충에 이르기까지 아니 되는 게 없어요. 그것이 바로 나툼이죠. 모두가 이 원자에서 분자로 화해서 입자가 돼서 모두 제각기 그쪽에 들어가면 그쪽에 들어가는 대로 원자가 돼서 모든 거를 다 해결하고서 한 찰나에 나고 들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얽히고설킨 업보가 하루아침에 그게 다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차곡차곡 그 입력이 됐던 것이 하나하나 나오는 대로 거기다가 놓으니까 거기 차근차근 입력된 게 하나하나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깐 자기가 지은 거 자기가 전부, 얽히고설킨 거를 제거하려면 하나하나 인내 있게 믿음 있게, 조금도 허탈히 마음을 먹지 말고, 오직 그 구멍은 털구멍 하나밖엔, 들어오고 나가는 게 그 구멍밖엔 없어요. 그 털구멍이라는 것도 방편이에요.

그러니까 길고 짧은 거를 생각하지 말고 '아하. 안 되는 것도 네가 하는 거구나. 양면을 다, 저울추 가리키듯 양면을 다 가르치기 위한 방편이구나. 아, 감사하구나.' 이걸 알아야 합니다. 그거를 '아이고! 안 되는 거, 내가 되긴 됐는데 안 되는 것도 있더라.' 이럭하면 안 되죠. 안 되는 것도 되는 거고 되는 것도 되는 건데. 그 안 되는 게 없다면 우리가 배울 수가 없어요.

스님들처럼 수행하고 싶어요

질문 요즘같이 살기가 팍팍하고 어려운 시절에는 속된 말로 하면 스님도 참 좋은 직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더 젊었더라면 저도 스님이 되어 공부하고 싶은데 다음 생을 기약하고, 지금은 비록 머리는 길었지만 어떻게 하면 스님들처럼 수행할 수 있을는지요.

답변 우리가 먹을 게 없어도 한 그릇에다가 숟가락을 꽂아 놓고 한 숟가락씩 먹어도 왜 웃고 먹을 수 있느냐. 왜 즐겁게 먹을 수 있느냐는 얘깁니다. 울고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먹을 것도 없고 그래서 한 그릇에다 숟가락을 죄 꽂아 놓고 먹는데 그 웃음이 납니까마는 그래도 환하게 법의 웃음이 나는 것은 잠시 이렇게도 해 보고 저렇게도 해 보고, 남의 마음을 알려면, 남의 고생하는 고를 알려면 별짓 다 해봐야 되는 거죠.

누구나가 다 그렇습니다. 중노릇을 하는 그런 차원도 스스로서 자기가 해서 자기가 그 차원의 그 진의를 받는 거지 누가 해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네가 진짜로 남의 것을 뺏어 먹고 이러는 거보다도 아주 그 마음이 강악해서 남을 해롭게 하고 악쓰고 화내고 온통 남을 섭섭하게 하고 하는 것이 그게 큰 지옥문에 도달하는 것이니라." 그게 큰 문제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저거 하면 이 차원에 의해서 어디를 간다, 등수가 올라간다 이런 것도 자기가 해서 자기가 받는 거죠. 그래서 보살 문턱에 들어서지도 못한다는 얘기죠.

이 무명초를 깎아 버리면 다 된다고 하지만 무명초는 방편으로 깎아 버리고 깎아 버리면 또 길러지고 하는 걸 배우기 위함입니다. 이 무명초를 깎아 버리듯 내 내면의 모든 것을 다 벗어 버리게 되고 털끝 하나 남기지 않고 다 벗어 버리게 되면 함이 없이 정말 하는 거고 삶이 없이 사는 거죠. 우리가 이 모습을 가지고 살면 얼마나 살겠어요? 천 년을 살겠어요, 만 년을 살겠어요?

근데 무명줄이라는 것이 끊어지고 또 이어지고 그러는 게 아니라 무명줄은 항상 영원히 그게 생명줄이죠. 생명줄이다 이러는 것은 생명에 관한 에너지 줄이다라는 얘기고 무명줄이라는 것은 이 남과 남이 같이 더불어 같이 사는 그 이유로 인해서 무명줄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 무명줄은 참 모든 거를, 우리가 전자에 살던 것이 잘못된 거라면 갚고 갚으면서 나가야 하기 때문에 고치고 갚고 이렇게 나가야 되거든요.

이거 괜한 소리가 아닙니다. 남을 뺨을 한 대 갈겼으면 꼭 어느 땐가는 뺨을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리를 안 하려도 안 할 수가 없어요, 현실이니까. 그렇게 해서 거기 차원까지 가지 못하면 그 자기 은사라도 저런 데로, 아주 심하게 다루는 데로 보내거든요. 죽으면 다시 태어나게 해서는 거기 글로 태어나게 하거든요. 바로 거기 태어나게 해서 거기서 고생을 진탕 해서 그게 완전히 자기 마음이 죽어야 그때 다니죠. 이것은 알지 못하거나 진실이 아니라거나 이런다면 이런 말을 못 합니다. 그러니깐 항시 조심하라고 하는 겁니다. 거죽으로 아무리 저거 해도 안으로다가 사악한 게 있으면 바깥으로 그냥 하염없이 나오게끔 되어 있으니까요. 그건 한 발짝 은커녕 반 발짝도 거기에 들어서지 못하죠.

우리가 그럼 착하기만 하면 그렇게 되느냐. 착하면 모든 게 다 순조롭게 돌아가거든요. 좀 미련스럽다 하더라도 말이에요. 우리가 보통 어렵게 살고 가난하게 살지만 마음은 참 착하다 그럼 과거에 살던 그 업으로다가 지금 현재에 그렇게 사는데 요다음에는 그렇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 A20면으로 계속



세상 모든 생명들에게
바치는 대행스님의
생활속 불법이야기

삶의 고해(苦海)를 건너가는 지혜의 가르침

삶은 苦고가 아니다(개정판)

"살아있는 탑에는
개개인의 살림살이와
보이지 않는 곳의 마음이
같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탑은, 거꾸로 세워놓아도 바로 세워놓아도
모로 세워놓아도 뒤집어서 세워놓아도
세상을 모두 하나로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2009년 4월 9일, 책 표지에 탑을 형상화하여 넣으라시며
탑의 의미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행 스님의 법문입니다.

대행스님 법어집 '삶은 苦가 아니다' 오디오북 출시

대행스님의 법어집인 '삶은 고가 아니다'를 오디오북으로 제작하였습니다.
전문 성우의 목소리가 아니라 대행스님의 가르침을 따라 마음공부 하는
이들이 수개월간의 정성과 노력을 담아 완성한 이 오디오북을 통해
불교를 더욱 편안한 마음으로 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오디오북 소개 |

제1장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가
• 내가 누구인지 모른대서야 00:03:13
• 누구나 부처 될 자격이 있으니 00:33:47
• 통하는 길은 오직 마음뿐 00:51:17
• 마음의 안테나를 세워라 1:26:20

제2장 누구에게나 똑같이 부여된 능력
• 생명의 에너지와 주인공 01:37:30
• 자신의 뿌리를 굳게 믿고 01:54:07

제3장 다 놓고 얻는 도리
• 놓고 가는 생활선 02:11:58
• 고정관념부터 깨라 03:03:44
• 삶은 고가 아니다 03:36:59

제4장 서로 돕고 사는 세계
• 공생 공용의 이치 04:23:15
• 생활 속의 마음 도리 05:00:41

제5장 가르침의 바른 이해
• 마음 밖에는 부처가 없다 05:43:54
• 불법의 바른 이해 06:05:10
• 실참 수행 06:49:56

제6장 고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으니
• 고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으니 07:23:00

정가 ~~14,000~~원 → 특판가 12,600원 / 신국판 / 314쪽 (배송비 별도)

『삶은 고苦가 아니다』는 1996년 9월에 처음 발행되어 초판 22쇄라는 기록을 남기고 스테디셀러로 자리매김한 대행스님 법어집 입니다.
2015년의 3판 개정판에 이어 2022년 4월에 개정 제4판을 내놓으며 읽기에 좀 더 편하도록 글자 크기를 키우고 잘못된 부분들을 수정하여 페이지 수를 추가하였습니다.

주문은 마하몰! 02)732-1520 인터넷 주문 : www.mahamall.co.kr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 ※ 전국 대형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